

大學의 自律的 批判機能



韓神大學長 朱 在 鏞

지금 우리 社會는 民主化된 社會를 창조하기 위하여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하겠다. 36년간의 日本의 植民地 統治와 8·15 해방 이후 40여년간의 억압적 통치를 경험하면서 우리는 人權과 社會正義와 自由를 위해서 꾸준하고도 피나는 투쟁(struggle)을 해왔다. 그리하여 1987년부터 우리 社會는 전반적으로 民主化에로 방향 정립을 하게 되었다. 民主化의 물결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거대한 時流로서 지금 흘러오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社會 속에 있는 大學社會가 예외일 수가 없다. 大學이 學問 研究와 教育을 그 1차적 기능으로 하고 있으나, 大學은 교수 집단, 학생 집단 그리고 행정 관리자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社會이기 때문에 집단내 또는 집단과 집단 사이의 상호 관계 속에서 民主化의 요청이 있게 마련이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의 우리의 大學은 모든 學事行政, 심지어는 커리큘럼까지 문교 행정 당국의 획일적 간섭을 받아 왔었다. 즉 大學, 특히 私立大學의 建學 理念을 무시한 채, 행정 편의주의적 차원에서, 그리고 統治者의 非民主的 統治 理念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정부는 모든 大學을 지배해 왔다. 지금 우리 大學들은 이 지배로부터 自由해야 하겠다는 것이다.

大學은 그 社會에서 최고 지성인들의 集團이다. 학문과 예술의 최고 전당이다. 최고의 수준을 가진 전문가 집단이요, 知識人 集團이며 學問共同體이다. 그러므로 大學은 本性的으로 외부의 통제에 대해서 拒否의 반응을 보이는 社會이다. 여기 大學의 自律性이 그 本質의 속성이라는 이유가 있다. 大學이야말로 사회 어느 기관, 집단보다도 自律을 그 생명으로 하고 있는 집단이다. 좀 강하게 표현하면 大學社會를 통제할 힘은 大學 外部에는 없다. 즉 大學社會를 통어할 힘은 大學 自體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다. 大學의 自律이란 大學

의 조직과 운영, 교육과 연구 활동, 그리고 大學 구성원의 意思決定의 행동에서 外部로부터의 간섭과 규제를 받지 않고 大學 自體가 主體的으로 할 수 있는 自己統制를 의미한다.

民主化의 물결에서 大學의 自律의 주장은 時代的 요청이며, 동시에 大學의 自律의 주장은 大學의 本質的 차원에서 당위적 요청일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우리의 大學의 現實的 상황을 고려하여 大學 自律의 주장을 自省的 차원에서 自問해야 할 것이다. 大學의 自律은 大學 自體에 대한 비판적 기능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大學은 眞理 탐구에서 찾은 理性的이며 合理的인 근거에서 社會에 대하여 비판 기능을 감당해야 한다. 그러나 그 批判機能이 大學 自體의 비판을 예외로 해서 안 된다는 것이다.

과연 오늘의 大學의 教授集團이나 學生集團이 自己統制性에 충실한가? 교육적인 차원에서 大學이 自己統制를 과연 얼마나 하고 있는가? 예를 들어 學生의 入學定員을 각 大學의 自律에 맡긴다고 했을 때 우리의 大學들이 과연 自己統制的 차원에서 입학 사정을 할 것인가? 교수 진급에 제출되는 논문의 심사가 과연 自律的으로 실행되고 있는가? 우리는 獨立性和 個別性이 강하고 전통에 뿌리가 깊은 大學을 中央集權的 統制로 大學의 自律을 빼앗고 억압한다고 外部 세력에 대해서 비판해 왔다. 그래서 大學의 本性인 自律性을 회복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大學이 그 自律을 빼앗길 때 大學 自體에는 아무런 책임이 없었는가? 大學이 自由와 自律을 감당하지 못하면 오히려 그 가치관들은 방종과 무질서의 역기능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며, 이때 大學은 불가피하게 규제와 통제 그리고 他律을 자초하게 되는 것이다.

大學이란 集團은 비판 집단이다. 대학의 1차적인 기능을 학문 연구와 교육이라 했다. 이 학문 연구와 교육은 비판을 통해서 활발해지는 것이다. 학문 연구와 교육의 과정에서 발견된 진리를 표준하여 大學人은 個人들이 속한 사회를 비판한다. 물론 이 批判은 否定的인 파괴적 비판을 의미하지 않는다. 大學의 비판은 창조적 비판이다. 이 창조적 비판을 우리는 大學의 自律的 批判이라 하는 것이다. 大學의 비판은 정치 단체의 비판과 그 차원을 달리한다. 大學의 批判은 政權的 차원의 비판일 수가 없다. 그와 같은 비판은 自律的 批判이라기보다는 他律的 批判이 되는 것이다. 大學이 他律的 批判機能을 수행할 때, 大學은 自律性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大學은 學問 研究와 教育의 기능을 할 때, 어떤 外部의 통제와 간섭을 거부해야 한다. 이 기능에 있어서 大學은 생명을 걸고 主體的·自意的 결단을 할 수 있도록 투쟁해야 한다. 그러나 그때 大學은 반드시 自律的 批判機能을 할 수 있어야 한다. 大學은 自律的 批判機能의 차원에서 교수와 교수, 교수와 학생간에 학문적 토론의 場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
